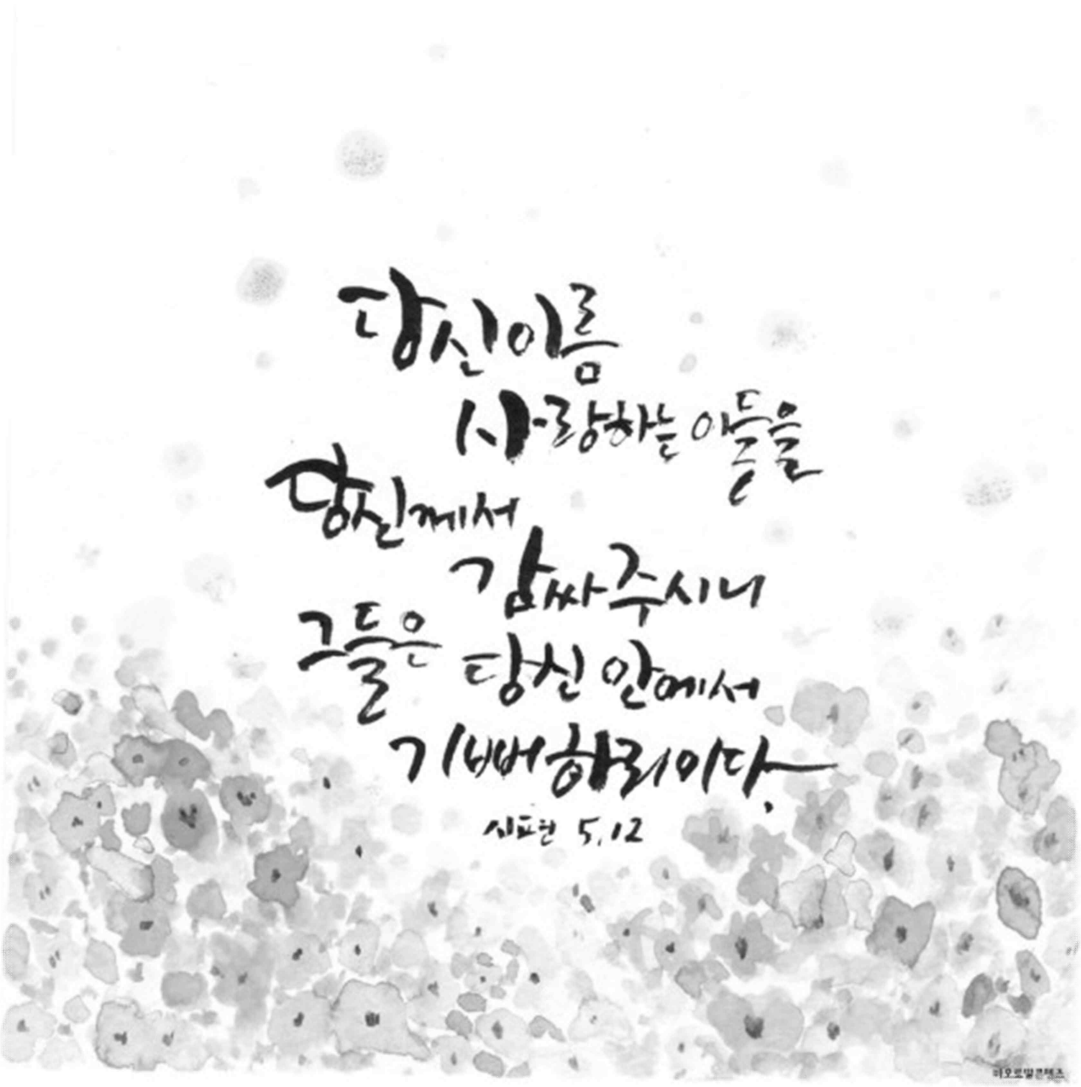
만남

2022년 5월
통권 208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 목 차 ❖

신부님 칼럼	성모성월에 우리는----------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5
영성의 숲	----------	8
영적 상담	----------	11
보물 창고	----------	13
성경 속의 사람들	----------	16
축일을 축하합니다	----------	18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월 중 행사표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5월 기도지향》

❖ 젊은이들의 신앙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 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신앙이 싹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시다.

✚ *성모성월에 우리는*

1. 성모성월의 의미 : 성월(聖月)이란 1년 중 어느 달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성인께 봉헌하여 특별한 전구와 은혜를 청하며 신자들이 모범을 따르도록 가톨릭교회가 지정한 달을 의미합니다. 주로 축일과 연관되어 제정되며 한 달 동안 특별한 지향을 갖고 기도하며 적절한 신심 행사가 진행됩니다. 교회는 5월을 성모성월로 제정해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의 모범을 모든 신자들이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신자들이 성모님을 따라 자신을 더 온전히 그리스도께 봉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성모성월이 되면 교구와 본당에서는 성모의 밤 등 성모님과 관계된 여러 신심 행사를 거행합니다. 1년 중 성모님과 연결된 성월은 5월 성모성월과 10월 로사리오 성월, 두 성월이 있습니다. 로사리오 성월은 10월 7일 '로사리오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과 연결되어 제정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을 성모성월로 기념하는 것은 성모님과 관련된 특별한 축일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와를 통하여 죽음이 왔지만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이 왔고, 또 성모님은 모든 산 이들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2. 마리아 공경의 의미 :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마리아 공경은 보통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서양의 교회에서는 마리아 신심이 감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더욱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신심은 순교자 신심과 함께 한국 신자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신교 신자나 비신자들로부터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종교'라는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마리아 신심에 대한 일체의 부정이나 과장된 신심은 모두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마리아 신심을 위해서도 마리아 공경(신심)의 근거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늘 하느님의 은총을 힘입어 성자 다음으로, 모든 천사와 사람들 위에 들어 높임을 받은 마리아가 천주의 모친으로서 교회의 특별한 예식으로써 공경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께 대한 각별한 공경을 통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로 이해되고 그분의 복음이 제대로 생활화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신심의 근거는 성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탄생의 예고와 그에 대한 전인적 응답에 기초합니다(루카 1,26-38; 마태 1,18-25). 하느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의 협조와 동참을 요구하셨고, 이에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로서 이러한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결정적 구원역사가 마리아를 통해 실현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서 단순히 예수님과 생물학적이고 혈연적인 관계만 맺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갖고 출산하여 모자관계를 맺었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랜 교회 전통에서는 마리아께서 육신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이미 마음 안에서, 정확히 말하면 믿음 안에서 잉태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의 잉태 소식에 '예'(Fiat)라는 응답을 통해 믿음으로 구세주를 잉태하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하느님의 구원역사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대표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느님과 일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아담과 에와, 노아에 의한 구원, 아브라함의 계약 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신앙행위는 하느님께서 새롭게 이룩하시는 구원사건의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 신심(공경)의 근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 신심은 마리아 찬미를 궁극적 목표로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성자 안에서 드러난 성부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미하는 데로 이어져야 합니다. 즉 마리아 신심의 정당성 여부는 이 신심이 마리아를 거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지향되어 있는가에서 판별됩니다. 또한 마리아 공경(신심)의 목표는 단순히 마리아를 공경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께 대한 합당한 공경을 통해 마리아의 신앙의 삶을 본받고 이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재현할 때 그 본연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헌신적인 봉헌은 수많은 믿는 이들을 위한 충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푸름을 한껏 뽐내는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결코 화려하지도 순탄하지도 않았던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5월 성모성월을 맞아 우리는 계절의 황홀함에만 잠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성모님의 고통과 순명의 삶을 나의 삶 안에서 되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더없이 소중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웃을 신앙의 여정으로 초대하는데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한 달, 특별히 성모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또 다른 그리스도인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풍성한 여름을 준비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0-26)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9장 “하나 되게 하소서.”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함께 하여 주소서.*

❖ *당신 부활의 영광을 저희도 누리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7 20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21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22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4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17 24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25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6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었고
앞으로도 알려 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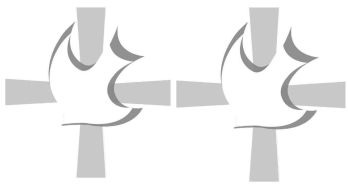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나 되는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리도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일치와 평화를 해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며, 같은 뜻으로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하나가 된 모습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인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며 삼위일체의 신비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청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받고' '주고' '높이 들어 올려지고'라는 모두 우리와 관련된 말입니다. 아들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여러 다양한 모습의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상반되는 성향과 욕망과 죄로 인해 스스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받아들였고, 그분의 말씀을 따랐고 그분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들을 알고 또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9장 "하나 되게 하소서."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18세기 독일 가톨릭 영성과 신비체험(전영준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올바른 신비체험으로 개인주의 신심 극복

17세기 프랑스에서 발생했던 이단 사조 때문에 18세기에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 가톨릭 영성은 얀센주의와 정적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올바른 수덕생활을 강조하고 신비생활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독일에서 가톨릭 영성은 개신교 경건주의,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등에 영향을 받은 개인주의 신심을 극복하기 위해 신비생활을 강조하면서 신비체험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도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애덕 실천과 신비체험을 강조한 성직자 세일러

바이에른 지방 오버바이에른 출신인 세일러(Johann Michael Sailer, 1751~1832)는 뮌헨에서 예수회가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1770년에 예수회에 입회했으며 인골슈타트(Ingolstadt)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1773년 교황 클레멘스 14세(재임 1769~1774)가 칙서「주님과 구세주(Dominus ac Redemptor)」를 통해 예수회를 해산했지만 세일러는 신학까지 계속 공부하고 1775년에 재속 사제로 서품됐습니다. 세일러는 서품 이후 여러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서 활동했으며, 1821년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교구 보좌 주교로 임명됐다가 1829년 교구장이 됐습니다.

세일러는 왕성한 저술 활동을 통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와해된 가톨릭 신앙과 영성생활의 재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 계몽주의는 그리스도교의 근본 교의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외형주의와 신비체험에 대한 무시 및 성직자의 세속화와 세속적인 주제들이 종교계를 비하하면서 가톨릭교회를 괴롭혔습니다. 따라서 세일러는 고대 철학이나 스콜라신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고, 교육학 교리교육학, 설교학, 사목신학 분야에서 다루는 최신 방법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면적이고 생동감 있으며 실천적인 그리스도교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애덕을 실천하는 신앙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교 신비체험을 통한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경건하고 지성적인 성직자가 되도록 훈련했습니다. 한때 신비체험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이단으로 고발되기도 했지만 종교적인 논쟁을 혐오했으며 교회가 불신앙을 거슬러 경건함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비체험의 본질을 연구한 평신도 신비신학자 괴레스

독일 서부 코블렌츠 출신인 괴레스(Johann Joseph von Görres, 1776~1848)는 독일 가톨릭교회 평신도 신학자이자 낭만주의 신비신학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괴레스는 신의 계시가 없어도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 '유리(唯理)주의(rationalism)'의 영향을 받아 자연과학에 심취했으며, 범신론적인 색채를 띤 작품을 저술했습니다. 괴레스는 1819년 작품 활동을 통해 교회가 국가로부터 독립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이 때문에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괴레스는 슈트라스부르크로 탈출해 1824년 가톨릭 신자가 됐고, 1827년 뮌헨대학교에서 교수가 돼 다른 학자들과 모임을 구성해 이끌면서 정기간행물을 통해 유리주의를 가톨릭 교리와 대비해 비판했습니다. 1837년에 쾰른(Köln)교구장이 독일 동북부 프로이센(Preussen) 왕국에 의해 폐위됐을 때, 괴레스는 독일 가톨릭 신자들에게 교회를 수호하라고 격려하면서 독일 가톨릭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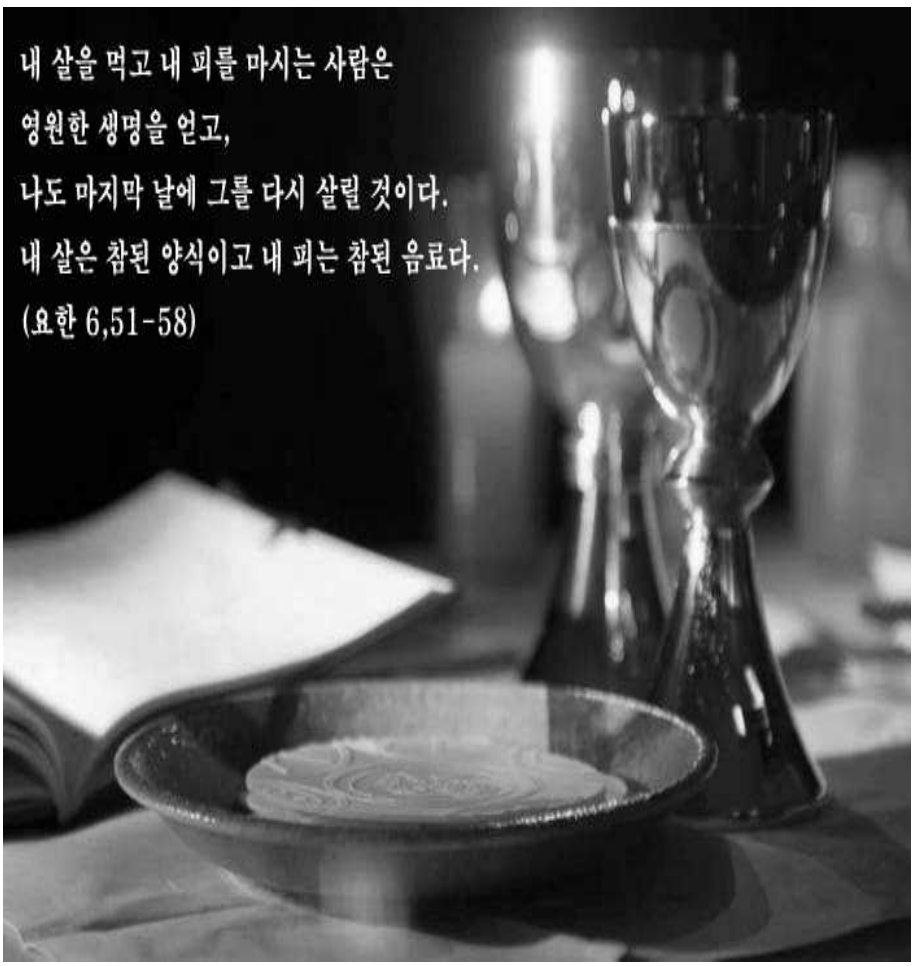
괴레스는 당시 대표적인 영성신학자도, 신비신학자도 아니었지만, 슈트라스부르크에서 그리스도교 신비신학을 접하고 연구하면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괴레스는 아그레다의 마리아 데 헤수스(Mara de Jess de greda, 1602~1665)와 같은 중세 신비체험 작가들을 접하면서 그리스도교 신비체험의 본질을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결국 1836~1842년 4권으로 구성된 저서「그리스도교 신비체험(Die Christliche Mystik)」에서 교회 성인들의 전기물과 함께 가톨릭 신비체험을 설명했습니다. 괴레스는 신비체험을 신적, 자연적, 악마적 세 가지 유형으로 언급하면서 신적 신비체험만이 인간 영혼을 하느님과 일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후대 신학자들은 괴레스의 신비신학이 감성적이고 환상에 가까우며 초점이 없는 부정확한 개념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으나, 괴레스의 신비신학은 독일 가톨릭교회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흔과 환시를 체험한 수도자 엠머리히

독일 북서부 코스펠트 출신인 엠머리히(1774~1824)는 1802년 뒬멘(Dülmen)의 아우구스티노 수녀회인 아그네텐베르크 수도원에 입회했습니다. 엠머리히는 수도원에서 수도 규칙을 엄격하게 실천했는데, 종종 병을 얻어 고통에 시달렸으며 때로는 황홀경을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수도생활을 엄격하게 하지 못하던 동료 수도자들은 엠머리히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Napoleonic Wars, 1803-1815) 때 나폴레옹이 건국하고 그의 동생 보나파르트(Jerome Bonaparte, 재위 1807~1813)가 잠시 왕위에 올랐던 베스트팔렌 왕국이 1812년 수도원을 폐쇄하자, 엠머리히는 어느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종교적인 체험을 자주 했습니다.

1813년에 엠머리히는 몸에 성흔(聖痕, stigmata)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는데, 이 성흔은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주교와 의사들로 구성된 심사단은 그녀의 성흔이 진실하다고 판명했습니다. 엠머리히는 예수님과 대화하거나 환시를 통해 연옥 영혼이나 성삼위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머리히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독일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브렌타노(Clemens Brentano, 1778~1842)와 교류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브렌타노는 엠머리히가 쓴 묵상서라고 소개하면서 1833년「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운 고통」을 출판했으며, 엠머리히의 환시들에 대한 브렌타노의 수집물을 브렌타노 사후에 제3자가 1852년「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생애(Leben der heiligen Jungfrau Maria)」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엠머리히가 직접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불확실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당대 독일 가톨릭교회에 신비체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독일 가톨릭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든 계층에서 가졌던 신비생활에 대한 관심은 독일 가톨릭 신자들이 영성생활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가톨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비체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에 미약하게나마 기여했습니다. 결국, 영성생활에 대한 독일 가톨릭교회의 관심은 개신교가 활발하던 환경 속에서 가톨릭 신앙을 지키는 원동력이자 핵심이었습니다.

질문

저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마음이 심하게 혼란해지고 기도를 드리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것이 왠지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성당에 가게 되질 않습니다. 성당은 마음이 정리된 후 가야 할 곳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교리를 공부하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도 고민입니다. 대모님은 아무 의심 없이 믿으라고 하시는데 전 의심이 많아 견진성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고민입니다.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많은 교우분이 자매님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주치는 혼란스러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머릿속은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져 때로는 사람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혼란하게 되는 정서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약해서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악의 유혹 때문인 것일까요. 심리 치료에서는 이것을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기 위한 과정이란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이면 내가 미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겠지만 이런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단지 이러한 생각에 발목을 잡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칫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밤새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신 주님처럼 십자가와 성모님 앞에서 내 두려움을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 안의 온갖 감정의 불편함을 고백하다 보면 심리적 안정감이 오고 회복도 빨라질 것입니다.

교리에 의문을 가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간혹 신앙인이 의심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람의 마음은 그리 성숙하지도 강하지도 않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생을 주님께 헌신한 마더 데레사 수녀님도 당신 삶은 주님께 대한 믿음과 의심 사이의 갈등이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더하면 더하지 갈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을 위한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한 분이 바로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님입니다. 성인은 마니교에 빠졌다가 끊임없는 의문과 물음을 통해 마니교의 모순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합니다.

물론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삶을 믿는 신앙생활은 이성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영적인 삶을 강조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심리적 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믿음에 제동을 거는 이성이 필요하고 의문과 물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사랑이신 하느님을 믿고,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살아계신 하느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사랑의 밀어이며, 성사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마음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사랑을 나누고 그분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하느님을 믿습니다. 긴가민가하게 믿는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생각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작은 유머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신부님이 밤새 기도하다 마음에 믿음이 북받쳐 들떴습니다. 신부님은 신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열띤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한 분이 “신부님, 산은 말고 성당 마당의 저 돌덩어리를 믿음으로 옮겨 주시면 저희도 믿음을 갖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신부님은 바로 눈을 질끈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돌만 옮겨 주신다면 제가 무엇이든 다하겠습니다.”

절절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돌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돌아가는 신자들을 보면서 망연자실해진 신부님은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산도 아니고 작은 돌덩어리 하나 옮겨 달라는데 그것 하나 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신부님을 한심하다는 듯이 보시면서 “돌은 옮겨서 뭐하게? 넌 왜 쓸데없는 데 믿음을 쓰려고 하느냐? 이놈아! 그리고 내가 네 부하냐? 너는 매일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면 늘 나를 종 부리듯 하더라, 괘씸한 놈!”이라고 하셨답니다.

⁕ 성모님에 대한 신심 행위 - 성모성월(허윤석 세례자 요한 신부님)

많은 이들이 5월이 왜 성모성월이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명백히 제시하는 가르침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모성월에 대한 역사적, 전례적, 신학적 근거의 부재로 5월을 성모성월로 지내는 관습과 관련하여 이를 폐지하자는 제안이 적지 않다고 교황청이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5월의 푸르름과 싱그러움을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에 적용시키는 것은 대중신심의 자연적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적도 아래인 남반부의 경우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11월을 성모성월로 지내는 교회도 많습니다. 사실 사막지역이나 남반부 지역은 5월 성모성월에 불리는 성가를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기후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모성월인 5월은 단순히 북반구 지역 교회에서 봄의 싱그러움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계절 축제로서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이러한 성모성월에 대한 감성적이며 신학적 근거 없는 계절축제로서의 성격은 당연히 여러 문제점을 내포합니다. 경신성성이 반포한 '대중신심과 전례에 관한 지도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191항에서 성모성월의 내용을 전례주년의 해당시기와 일치시키는 데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월은 대략 50일의 부활시기와 겹치므로 이 시기에 하는 신심 행위는 성모님의 파스카 신비 참여와(요한 19,25-27 참조) 교회가 시작된 성령 강림 사건을(사도 1,14 참조) 강조한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의 기도 아래 부활의 새로움에 동참하는 교회와 함께 걷고 계신다. 부활시기 50일은 또한 그리스도교 입교 성사 거행과 신비 교육을 위한 시기이기도 하다. 5월과 관련된 신심 행위들은 영광스러운 천상 모후께서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거행을 통하여 지금 여기 지상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쉽게 강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런 내용을 분석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5월이 성모성월이 되는 전례적이며 성서적인 근거는 두 가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모님의 파스카 신비 참여입니다.

성모님의 파스카 신비의 참여는 십자가의 예수그리스도 아래 어머니로서의 모습이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숨을 거두시기 전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친의 어머니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언급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당신의 어머니의 자녀로 삼으시는 선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선언을 잘 이해하고 마리아를 사도들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로 호칭하였고, 이를 위한 공경을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대중신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5-27)
두 번째는 교회가 시작된 성령강림 사건을 통한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직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의 어느 위층 방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였는데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사도 1,13-14)
신약성경의 원문인 희랍어 원문을 분석해 보면 확실히 “예수님의 어머니”이란 단어는 희랍어 문장의 구조와 단어 사용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이외에 성령 강림 전 기도모임에 참여한 구성원을 지칭하면서 세 그룹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여러 여자, 둘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셋째는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명사인 여자들, 형제들로 표현하였습니다. 여러 여자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독립적인 단수명사이며 고유명사화 하기 위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원문의 분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초대 교회의 탄생에서 성모님의 역할에 대한 교회사적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성모님께서는 성자의 잉태 때에도 천사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라고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강림 전 골방에 모인 제자들! 두려움과 목자 잃은 양처럼 예수님을 이젠 볼 수 없다는 상실감에 힘들어 하던 제자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그 중심에서 기도하신 사도들의 모후이신 어머니는 당신의 신적모성을 발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천사의 알림에서부터의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마리아는 성령 강림 전 기도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에 대해 제자들에게 언급하였을 것이고, 믿음의 여인이자 성령의 짝이신 당신께서 믿음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셨던 것처럼 마리아는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이러한 당시의 다락방의 모습을 “한마음으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인 성령 강림의 장소에는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형제들과 사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즉 평신도들이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신앙에 있어 또 다른 여신이 아니라 구원역사의 현장에서 모범적인 위치에 있었던 신앙의 모델로서의 평신도였습니다.

오늘날 성모성월의 구원사적이며 전례적 근거를 재조명하는 이와 같은 교회 가르침은 널리 전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모성월은 푸르른 오월의 싱그러운 자연경관에 따른 미학적 심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파스카의 신비와 성령 강림에서 나타난 마리아의 구원협력 사건을 기억하는 전례주년에 근거한 두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덧붙여 5월과 성모님을 처음으로 연결시킨 사람은 카스티야(스페인의 중부)의 왕 알폰소 10세(1221-1284)였습니다. 그는 5월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성모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풍요로움을 연결, 5월 한 달간 특별히 마리아에게 기도하자고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5월을 성모님의 달로 기념하는 전통이 서방교회로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모성월이 구체화한 것은 17세기 말입니다. 1677년 피렌체 부근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련원에 성모를 특별히 공경하는 단체가 생겨 5월 중에 성모께 봉헌하는 축제를 마련하고, ‘성모호칭기도’를 바치고, 마리아에게 장미 화관을 봉헌하는 등 성모신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이런 행사는 그 뒤 유럽교회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 여러 신학자들이 ‘성모성월’이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정착시키는 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비오 9세 교황님이 1854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선포한 후 성모신심은 절정에 달했으며, 성모성월 행사는 공적으로 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성모성월을 제정한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성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모 마리아가 보여준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평생을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던 성모님은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뵈올 수 있기를 염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 성경 속의 사람들 - 노아(이용권 안드레아 신부님)

창세기의 원역사(原歷史), 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노아 이야기입니다(6,9-9,29). 이 노아 이야기의 대부분은 홍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쓸어버리시기 위해 홍수를 일으키셨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동물들이 방주를 통해 구원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표징으로 세우셨다.'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하느님의 입장에서, 하느님의 개입과 활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홍수를 일으키고 그치게 하고 정리하는 것도 다 하느님이십니다. 인간은 수동적으로 그분의 결정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풍성하지도 않고 큰 강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엎어버릴 정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홍수 이야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현재의 이라크)의 신화들(길가메쉬 서사시,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에리두 창세기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나온 이야기들까지 받아들여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천명하려는 의도에서 그리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는 그가 태어날 때의 일화(창세 5,28)가 말하듯이, '위로, 위안'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세상의 타락에 대한 보고(6,1-7) 뒤에 노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느님의 눈에 들었다."(6,8) 노아가 무엇을 했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노아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유로이 그를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뒤에 노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6,9)

'의롭다.'(차디크)라는 말은 '죄 없는, 정직한'이라는 기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에게나 요구되던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사람이나 희생적인 사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등을 일컫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사는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죄를 피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흠 없다.'는 것은 '완전한, 온전한'이란 뜻에서 나왔는데, 주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에게 자주 사용되던 말입니다. 이 말이 사람에게 해당될 때는 의로운 사람을 넘어서는 이들을 일컫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라는 말은 정말 특별한 말입니다. 노아 이야기 앞에 나오는 아담의 자손 목록에서 오로지 ‘에녹’만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창세 5,22.24). 우리말로 ‘살아갔다’라고 옮겨진 말은 본래 ‘걸어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일찍이 ‘하느님과 함께 걷는 이’, ‘하느님의 동행자’로 살다가 하느님께서 데려간 에녹과 같이,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일반적인 덕행에 모범적이었으며, 하느님 앞에 나서기에 합당했으며,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까지 받은 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가 홍수 이야기 안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시자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갑니다.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도 그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할 때 새들을 날려 세상을 살펴보지만,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잎을 보고 ‘물이 빠진 것을 알았지만’, 밖을 내다보고 땅이 말랐음을 보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르지 않습니다(8,6-13). 주님께서 ‘방주에서 나와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씀에 따라 밖으로 나옵니다(8,18). 그는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이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입니다. 노아는 또한 답답한 방주 안에서 일 년여의 시간(7,11 육백 살 되던 해 둘째 달 열 이렛날부터 8,13.14 육백 한 살이 되던 해 둘째 달 스무 이렛날까지)을 기다립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고, 밖은 오로지 파멸의 물만이 가득한 세상, 그 한 가운데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러 신호들이 밖으로 나와도 된다고 해도 그는 그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 자신을 이끄시는 주님의 목소리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자, 그대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배웁니다. 하느님을 찾는 이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노아를 통해 배웁니다. “사방이 어둠이요, 모두가 내게 대적하는 것 같은 상황, 아무도 답을 주지 않고 주님마저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뜻만을 따르는 신앙인의 자세를 지켜갈 수 있겠는가?” 노아의 모습은 이러한 질문에 답합니다. “그는 순종했고, 그는 기다렸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구원을 얻었다.” 때로 나의 의지에 반하고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어떤 놀라운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다는 데에 있지 않고 놀라우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 축일을 축하합니다 ❖

❖ 5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필립보	김경렬	15일	소피	이공종
8일	데시데라토	방은일	16일	요한	홍경영
12일	젬마	김(이)정자 방(조)영자	22일	율리안나 (율리아)	김효정 방수정
14일	크리스티안	이성원	25일	소피아	이신자
			30일	요안나	윤석순

❖ 5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야곱	정광하(H) 이태호(O)	14일	마리아 도미니카	이혜진(H)
6일	베네딕타	민병진(H)	15일	소피아	박영희(B)
8일	이다	최이다(H)	22일	리타	김남화(B)
12일	젬마	김선주(H)			

❖ 5월 성가번호 ❖

5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1일	130	211	197	244
8일	55	218	163	128
15일	418	236	35	137
22일	136	332	506	249
29일	137	215	173	141

❖ 본당 전례 ❖

❖ 5월 전례 봉사 ❖

5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1일	백정선(토마스 아퀴나스) 이영자(헬레나)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1구역
8일	최승진(바오로) 신지혜(체칠리아)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주일학교	2구역
15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3구역
22일	최성자(벨라데타) 김매자(베로니카)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4구역
29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요셉 마리아회

❖ 본당 살림살이 ❖

❤ 4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4월 24일 기준)

강신행, 윤석순, 권말숙 Rabe, 강순행, 최장용, 영희 Eggerstedt, 김민옥, 이정수, 김경미, 최순남, 최장용, 손수희, 현영애,

✿ 계좌 입금(4월 22일 기준)

정정숙, 허두욱, 이명원, 김치수, 현영애, 이공종, 송문규, 허길조, 최현봉, 김유석, 육종인, 허선애, 이영원, 이성원, 김진호, 이석우, 옥수 Ranitzsch, 이경규, 김동수, 백정선, 김원자, 배성우, Caroline Tunas, 강일남, 최종금, 최성자, 춘옥 Zerbock,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4월 24일 자 통장 잔액은 24.925,89유로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님의 순명과 사랑의 정신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2. 5월 8일은 Muttertag입니다. 청년회에서 꽃을 준비하여 어버이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3. 5월 10일 화요일 저녁미사 후에는 꾸리아 월례회가 있습니다.

4. 5월부터는 미사 후 커피 나눔을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주시고, 커피를 마시거나 Kuchen을 드실 때 이외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성모님의 밤 행사는 5월 18일 수요일 만남성당 강당에서 19시에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5월 지방공동체 미사는 첫째 주, 둘째 주, 그리고 하노버 공동체는 셋째 주 토요일에 봉헌합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목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부회장	
			부회장	
			전례부장	
			총무	
주일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월요일 10시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레지오 마리애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레지오 마리애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레지오 마리애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가나(마르가리타)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신지혜(체칠리아)
			부회장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5월(성모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 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일	부활 제3주일(생명 주일), 근로자의 날		
2	월	성 아타나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3	화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4	수			
5	목	어린이 날, 입하		
6	금			
7	토			브레멘 공동체
8	일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부처님 오신 날	Muttertag 행사	어버이 날
9	월			
10	화		꾸리아(저녁 미사 후)	
11	수			
12	목			
13	금			
14	토	성 마티아 사도 축일		오스나브뤼크
15	일	부활 제5주일, 스승의 날		
16	월	성년의 날		
17	화			
18	수		성모님의 밤 19시	만남성당 강당
19	목			
20	금			
21	토	부부의 날		하노버 공동체
22	일	부활 제6주일		
23	월		연령회	교육 주간(29일까지)
24	화			
25	수	성 필립보 네리 사제 기념일		
26	목			
27	금			
28	토			
29	일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청소년 주일)		
30	월			
31	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안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본당 신부님 gruess8823@gmail.com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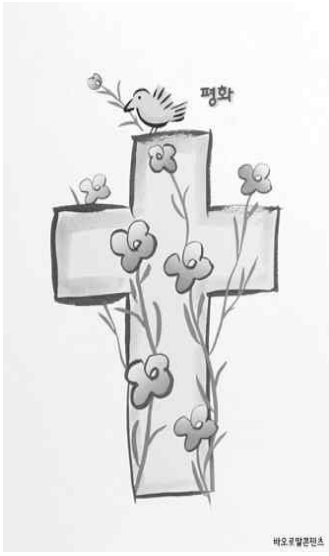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